

# 광주도 법무법인 전성시대

### 지난해 5곳·올 2곳 설립...변호사 3명중 1명 법인 소속

### 전국 변호사 2만1042명 5년새 78%↑...불황 타개 교육지책

변호사들이 붐치고 있다. 불황 타개를 위한 전략이다. 광주에서 지난해에만 법무법인이 5곳이 생겼고 올 들어서도 2곳이 설립됐다. 광주·전남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3명 중 1명은 법무법인 소속이다. 가히 법무법인 전성시대라 할만하다.

23일 광주지방변호사회 등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시장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교육지책으로 법무법인 설립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2월 법무법인 '형제'를 시작으로 3월 '공강', 7월 '아크로', 9월 '정훈', 11월 '유달' 등 5개의 로펌이 생겼

다. 올 들어서도 '지음'과 '맥'이 설립됐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법조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로펌 설립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전체 변호사 등록자 수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서 올해 4월30일 기준 2만1042명으로 집계됐다. 2010년 12월 기준 1만1802명과 비교하면 5년새 78% 증가한 것이다. 광주·전남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는 418명이다. 이 중 140명이 23개의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다. 3명 중 1명이 법인 소속인 것이다. 지역의 대표적 법무법인은 '바른길',

'이우스', '서석', '21세기' 등이다. 특히 지난 21일 부장판사와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등 12명이 모여 법무법인 '맥'을 설립하면서 지역 변호사들 간 연합집단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맥'은 변호사 구성으로만 보면 '바른길'(13명)에 이어 두번째 규모다. 순천지원 부장판사를 지낸 조재건(연수원 24기), 광주고법 판사 출신 서정암(26기), 장흥지원장을 지낸 뒤 법복을 벗은 문방진(26기) 변호사 등 판사 출신 3명과 광주지검에서 근무한 노로(29기)·권오성(33기) 변호사 등 검사 출신 2명 등 총 5명이 대표 변호사로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 7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조재건·문방진 변호사는 판사 재직 때

공보관을 지낸 경력이 있고, 서정암 변호사는 판사 시절 '구두담이 판사'로 불리었다. 가난 때문에 17세때 서울로 올라가 구두를 닦으며 독학으로 중·고등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경제학과와 사법고시에 합격해 주목받았다. 가난함과 약조건을 딛고 어렵게 '법복'을 입었던 그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의 선행도 베풀고 있다. 법무법인 '맥'의 서정암 대표 변호사는 "그동안 각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면서 "광주에서도 이전 소송업무 뿐만 아니라 기업 법률 자문 등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통학로 옆 철탑 반대”

### 삼각동송전선로비대위 집회

‘삼각동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3일 광주시 북구청 앞에서 ‘학교 통학로 옆 지중화형 CH철탑 설치 점용 허가’를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비대위 회원들은 1년 넘게 북구 삼각동 국제고·전남여상·삼각초 주변 고압송전탑(15만4000볼트)의 전면 지중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광주시는 이렇다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광주시가 문제가 된 국제고 옆 철탑을 전면 지중화가 아닌 지중화형 CH철탑으로 설치하기로 결정하면서 광주시와 비대위 간 갈등이 깊어졌다. /최해배기자 choi@kwangju.co.kr

## “누리에산 편성하라” 거리 나선 원장들

### 전남어린이집연합 3000명 농성...오늘 도의회 방청객 참석

전남 어린이집 원장들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요구하며 농성에 나섰다. 전남어린이집연합 소속 원장 3000여명은 23일 전남도교육청 앞길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정부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대책 마련하라’, ‘법 논리로 아이들 차별하는 교육감은 각성하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도교육청과 전남도의회를 향해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24일 열린 도교육청에 대한 2차 추경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6월~12월·527억원)이 반영되길 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초 도교육청은 도의회에

서 열린 1차 추경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00억원(1월~5월 분)을 편성했지만 2차 추경예산 한도 배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24일 열린 도교육청에 대한 2차 추경심의를 원천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남어린이집 소속 원장들이 이날 도의회에서 열린 도교육청에 대한 2차 추경에 방청객으로 참여할 예정이어서 양측 간 마찰이 예상된다. 상당수 지역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유치원 예산을 삭감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문 닫고 고등어 구우면 미세먼지 25배

집에서 문과 창문을 닫고 주방에서 요리할 때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요리는 고등어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하는 미세먼지(PM2.5) 농도가 2290µg/m³인 점을 고려하면 대기 미세먼지 농도 ‘주의보’ 기준(90µg/m³)의 25배 이상인 셈이다. 환경부가 주방에서 요리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험장에 대한 2차 추경에 방청객으로 참여할 예정이어서 양측 간 마찰이 예상된다. 상당수 지역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유치원 예산을 삭감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조사 결과, 주방에서 조리할 때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 등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스레인지 요리기구와는 관계없이 기름 등 요리재료 연소과정에서 오염물질 대부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환경부는 분석했다. 부기가 구이 등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요리를 만들 때에는 요리기구의 뚜껑을 닫아야 하고, 가급적이면 조리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환경부는 조언했다. 요리 후 높아진 미세먼지 농도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면 15분 내로 평상시 수준으로 낮아졌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3 | 해질 19:36 | 달돋이 21:33 | 달질 07:14

대위 석하는 단비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흐리고 비	19/24
보성	흐리고 비	18/22
순천	흐리고 비	18/23
여수	흐리고 비	18/21
영광	흐리고 비	18/22
나주	흐리고 비	17/24
진도	흐리고 비	19/22
전주	흐리고 비	19/22
군산	흐리고 비	18/19
진원	흐리고 비	19/22
홍산도	흐리고 비	16/19
장성	흐리고 비	17/23

지역	바다 날씨	기온
서해	안바다	남~남서 0.5~1.0
남부	안바다	남~남서 1.0~2.0
남해	안바다(동)	남동~남 0.5~1.5
서부	안바다(서)	남동~남 1.0~2.5

지수	상태
주의	식중독
보통	자외선
좋음	미세먼지

날짜	날씨	기온
25(수)	☀	16/29
26(목)	☀	15/28
27(금)	☀	17/26
28(토)	☀	16/28
29(일)	☀	16/27
30(월)	☀	16/29
31(화)	☀	16/28

## 올 여름 덥고 비 많이 온다

### 최근 10년간 열대야·폭염일수 증가...태풍은 1개 예상

올 여름 광주·전남지역은 6월부터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여름 장마 이후에도 국지성 호우가 잦겠다. 다만 올 여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1개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10년간 광주·전남지역은 여름철 평균기온이 높아지고, 열대야와 폭염 일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남서풍의 영향으로 대기 불안정에 의한 국지성 호우가 내리는 날이 많을 것으로 예보됐다. 올 여름 태풍은 평년(11.2개)보다 적은 7~10개가 발생해 1개(평년 2.2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대부분 태풍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해 중국 남동부지역을 향하는 경로가 많겠으며, 우리나라를 향할 경우 비교적 강한 강도의 태풍이 단시간에 한반도에 도달 가능성이 높다.

23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16년 여름철(6~8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6월과 8월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 7월에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수량은 6~7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고, 8월에는 다소 많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초반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고 기온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후반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장마철에 접어들지만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7월 초에는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가운데 다소 많은 비가 내리다가 후반에는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특히 장마가 끝난 8월에는 무덥고 습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북태평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06~2015년)간 이 지역 여름철 평균기온은 24.3도로 평년(1981~2010년)보다 0.4도 높아졌다. 열대야 일수는 1973~1993년 평균 5일에서 1994~2015년 평균 8.6일로 3.6일 증가했고, 폭염 일수도 같은 기간 5.8일에서 6.9일로 1.1일 늘었다. 여름철 강수량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4~2015년까지 여름철 평균 강수량은 800.4mm로, 1994년 이전 평균(705.5mm)보다 13.4% 증가했다. 특히 장마 종료 후 강수량이 36.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대한보청기 www.maxo.co.kr

# 또는 보청기를 처음, 다시 하려면...!

- 매우 중요한 사실 -

일반적으로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로서 소리를 크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성(노화성), 신경성 난청은 다릅니다. 소리만 크게 해주면 청각 인식범위가 좁아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웅웅거립니다. 이는 청각 신경세포가 퇴화되어 보충현상(Recruitment)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청기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보청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되, 말소리(어음)와 여러가지 소리를 잘 인식·식별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적 기능이 없으면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잘 알아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이 '맥소' 보청기의 기술·기능입니다. 대한보청기는 '맥소' 보청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난청과 보청기는 소리의 인식과 식별의 기술이 핵심이므로 대한보청기는 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격부담이 적어야' 하므로 맥소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맥소 '1,2,3' 맥소 '에비오' 맥소 '스코프' 맥소 '크리스프' 등은 그러한 상위기능의 제품군으로 소개됩니다. 대한보청기의 본사 직영센터는 보청기의 상위핵심 기술로서 소리의 식별·인식의 기술 및 기능을 매우 중시하며·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맥소를 시험관장해 드리므로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책자 무료발송**

보청기의 종류·가격·시험테스트  
상담·검사·구입·무이자할부 등 안내

광주·전남 062)430-8900  
순천·여수 061)741-4880  
전북·전주 063)251-4999

**대한보청기 본사 직영센터의 특징점 - 직영가·18개월 무이자 할부·렌탈·편리한 직영 시스템**

◆강안본점 02)2248-5600 ◆중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전동구본점 042)634-2080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진)본점 051)335-7800 ◆부산중구본점 051)632-62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 전국, 천사 무료 방문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지금 상담중...!

# 1599-9040